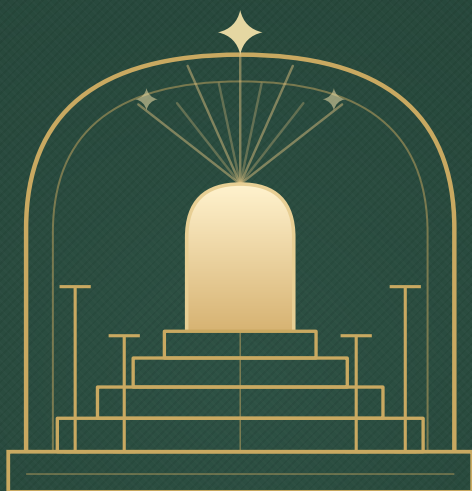




궁합 한방풀이

두 사람의 마음, 함께하는 내일

고 객 명 홍길동

출생연도 1994년 (양력 1월 18일)

발 행 일 2026-01-01

우리는 어떤 궁합일까? 먼저 보는 핵심 답변

잘 맞는 점, 가장 큰 차이, 결혼 전 확인할 점, 오늘 할 행동 — 결론부터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일간 갑

두 사람은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홍길동님의 일간 갑목이 상대의 일간 정화를 생합니다. 나무가 불을 키우듯 홍길동님이 주고 상대가 받는 구조입니다. 지지에서는 사유축 삼합이 성립해 함께 있을 때 결정이 빨라집니다. 근거는 21·22쪽에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표현입니다. 홍길동님의 월지 축과 상대의 월지·시지 미가 축미충을 이룹니다. 홍길동님이 지키려는 일상의 리듬과 상대가 지금 꺼내고 싶은 표현이 같은 시점에 부딪힙니다. 27쪽의 갈등 흐름도가 이 자리를 다룹니다.

결혼 전 확인할 점은 돈과 표현의 속도입니다. 홍길동님은 정재격이라 계획된 지출을, 상대는 상관격이라 표현과 즐거움에 쓰는 지출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34쪽과 38쪽의 합의표로 확인하십시오. 결혼 성사 여부를 사주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맞추면 되는 인연인지가 이 책의 답입니다.

오늘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표현을 꺼낼 때 '지금은 아니다'로 미루지 말고 시간을 정해 듣는 것입니다. 45쪽에서 이유와 방법을 적었습니다.

항목	핵심 답변	근거·방법이 있는 쪽
잘 맞는 점	목생화의 상생, 사유축 삼합의 연결점	20 · 21 · 22쪽
가장 큰 차이	축미충 — 일상의 리듬과 표현 시점	24 · 27쪽
결혼 전 확인할 점	돈 쓰는 기준과 표현의 속도	34 · 38쪽
관계를 좋아지게 할 행동	미루지 않고 시간을 정해 듣기	45 · 47쪽

제 2 장

나의 사주 — 나는 어떤 관계에서 행복 할까?

5 - 11

나의 사주원국표

홍길동님의 여섯 글자입니다. 시주는 출생 시각이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시주 말년·자녀	일주 중년·본인	월주 청년·부모	연주 초년·조상
십성	—	일간	겁재	정인
음양오행	—	갑(양목)	을(음목)	계(음수)
천간	—	갑 甲	을 乙	계 癸
지지	—	진 辰	축 丑	유 酉
음양오행	—	진(양토)	축(음토)	유(음금)
십성	—	편재	정재	정관
지장간	—	을·계·무	계·신·기	경·신
12운성	—	쇠	관대	태
12신살	—	천살	화개살	장성살
신살·귀인	—	금여성 백호대살 현침살 화개살	천을귀인 화개살	천문성 도화살



나의 일주 동물·용

품이 크고 상상이 넓습니다. 판을 키우는 데 강합니다.

연주 계유, 월주 을축, 일주 갑진입니다. 가운데 줄의 갑(甲)이 홍길동님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고, 나머지 글자는 일간에서 본 역할(십성)로 읽습니다. 연간 계수는 정인, 연지 유금은 정관, 월간 을목은 겁재, 월지 축토는 정재, 일지 진토는 편재입니다.

표의 지장간은 지지 안에 숨은 천간입니다. 일지 진에는 을·계·무가 들어 있어 배우자 자리에 겁재·정인·편재의 성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10쪽 배우자궁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의 사주원국표

상대의 여덟 글자입니다. 출생 시각이 있어 네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시주 말년·자녀	일주 중년·본인	월주 청년·부모	연주 초년·조상
십성	비견	일간	편인	편재
음양오행	정(음화)	정(음화)	을(음목)	신(음금)
천간	정 丁	정 丁	을 乙	신 辛
지지	미 未	해 亥	미 未	사 巳
음양오행	미(음토)	해(양수)	미(음토)	사(양화)
십성	식신	정관	식신	겁재
지장간	정·을·기	무·갑·임	정·을·기	무·경·병
12운성	관대	태	관대	제왕
12신살	월살	역마살	월살	지살
신살·귀인	화개살	천을귀인 천문성 역마살	백호대살 화개살	양인살 현침살 역마살



상대의 일주 동물·돼지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복이 붙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연주 신사, 월주 을미, 일주 정해, 시주 정미입니다. 일간 정화가 상대 자신입니다. 연간 신금은 편재, 연지 사화는 겁재, 월간 을목은 편인, 월지 미토는 식신, 일지 해수는 정관, 시간 정화는 비견, 시지 미토는 식신입니다.

일지 해의 지장간은 무·갑·임으로, 배우자 자리에 상관·정인·정관이 섞여 있습니다. 17쪽 배우자궁 해석의 근거입니다. 월지와 시지가 같은 미토라 식신이 둘인 점은 15쪽 애정 표현의 핵심입니다.

끌림과 충돌은 어디에서 생길까?

사유축 삼합과 축미충이 함께 성립합니다. 끌림과 충돌이 같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

관계 진유합 · 진축파 · 유축 반합

이 지면이 답하는 질문은 '끌림과 충돌은 어디서 생기는가'입니다. 두 원국 사이에 실제로 성립하는 것만 적습니다. 지지에서 사유축 삼합(금)과 축미충, 천간에서 을신충이 성립합니다. 천간합은 없고, 두 사람의 일지(진과 해) 사이에는 합도 충도 없습니다.

사유축 삼합은 상대의 사와 홍길동님의 유·축이 만나 금을 이룹니다. 금은 홍길동님에게 관성, 상대에게 재성입니다. 함께 있을 때 홍길동님은 관계의 틀을 더 분명히 하고, 상대는 현실을 더 챙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만나면 결정이 빨라지는 이유이고, 처음 끌린 자리입니다.

축미충은 홍길동님의 월지 축(정재)과 상대의 월지·시지 미(식신)의 충입니다. 성격 충돌이 아니라 영역 충돌입니다. 홍길동님이 지키려는 일상의 리듬과 상대가 지금 꺼내고 싶은 표현이 같은 시점에 부딪힙니다. 토와 토의 충이라 깨지기보다 흔들립니다. 을신충은 홍길동님의 겁재(을)와 상대의 편재(신)의 충으로, 상대의 쑸쑸이에 홍길동님이 나서서 개입할 때 드러납니다.

삼합과 충이 함께 있다는 점이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잘 맞는다 안 맞는다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연결될 통로도 있고 부딪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커지는지는 27쪽의 흐름과 45·46쪽의 행동이 정합니다.

관계	성립 여부	걸린 자리	관계에서의 뜻
사유축 삼합(금)	성립	상대 사 + 홍길동님 유·축	함께 있을 때 결정이 빨라짐
축미충	성립	홍길동님 축 ↔ 상대 미·미	일상의 리듬과 표현 시점이 부딪힘
을신충(천간)	성립	홍길동님 을 ↔ 상대 신	쑸쑸이에 나서서 개입할 때 부딪힘
천간합	없음	—	말로 맞추는 관계는 아님
일지 간 합·충	없음	진 ↔ 해	가까운 자리의 직접 충돌은 없음

다툼 때 가장 크게 엇갈리는 지점

갈등은 표현의 시점에서 시작해, 침묵과 확인 요구가 맞물리며 커집니다.

이 지면이 답하는 질문은 '다툼 때 가장 크게 엇갈리는 지점이 어디인가'입니다. 근거는 흥미충입니다. 홍길동님의 정재(축)와 상대의 식신(미)의 충돌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인가'를 두고 부딪힙니다.

갈등의 시작은 대개 상대가 무언가를 꺼낸 순간입니다. 홍길동님이 '나중에'라고 하면 상대는 밀렸다고 느끼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홍길동님은 그 날카로움에 조용해집니다. 상대는 침묵을 거리로 읽고 확인을 요구하고, 홍길동님은 요구에 더 닫힙니다. 이 순환이 갈등을 키웁니다.

멈추는 방법은 순환의 첫 고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신 '오늘 저녁 8시에'로 시점을 붙이는 것입니다. 시점이 있으면 상대의 식신은 기다릴 수 있고, 홍길동님의 정재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즘 자주 부딪히는 일이 입력되면 이 흐름도가 그 사건에 맞춰 다시 쓰입니다.

단계	상황	홍길동님의 반응	상대의 반응	멈추는 행동
시작	상대가 이야기를 꺼냄	'나중에'	밀렸다고 느낌	시점을 붙여 답하기
확대	말이 날카로워짐	조용해짐	침묵을 거리로 읽음	'들었다'는 신호 먼저
절정	확인 요구 반복	더 닫힘	식어 감	24시간 안 재개 약속
회복	정한 시점에 대화	사실부터 말함	감정부터 말함	순서를 서로 허용

결혼 전 반드시 맞춰볼 일곱 가지

결혼 전 맞춰볼 일곱 가지 — 질문과 두 사람의 예상 답, 합의 칸을 두었습니다.

5부를 합의표 하나로 정리합니다. 왼쪽은 물을 것, 가운데는 두 사람의 사주에서 예상되는 기본 입장, 오른쪽은 실제로 합의한 것을 적는 칸입니다. 예상 입장은 근거일 뿐이고, 합의 칸을 두 사람이 채워야 이 표가 완성됩니다.

자녀 계획은 가치관 항목으로만 둡니다. 낳을지, 언제쯤, 어떻게 기를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사주로 가능성이나 수를 점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계 단계가 기혼이라면 이 표는 '지금 다시 맞춰볼 일곱 가지'로 같은 항목을 씁니다.

항목	물을 것	홍길동님의 기본 입장	상대의 기본 입장	합의
돈	합칠 범위와 각자 몫	계획·저축 우선	즐감·자율 우선	
주거	어디에 누구 기준으로	안정과 예측 가능	편안함과 자기 공간	
가사	기준과 시간	정리 기준 높음	편안함 기준	
가족	명절·거리·사생활 공유	틀을 따름	선을 두 사람이 정함	
일	바쁜 시기의 방식	혼자 시간 필요	관심 있는 말 필요	
자녀 계획	가치관과 시기	정해 두고 준비	함께 즐기며 정함	
갈등 해결	재개 시점과 순서	시점을 정해 사실부터	그 자리에서 감정부터	

두 사람의 관계 달력 — 전반 6개월

발행 시점부터 여섯 달 — 월별 주제, 추천 대화, 함께 해볼 행동, 조율할 사항입니다.

달력은 예언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월운은 그 달에 어느 기운이 앞서는지를 알려 줄 뿐이고, 주제·대화·행동은 두 사람의 원국과 4·5부의 조율 방법에서 가져왔습니다. 발행 시점을 첫 달로 두고 여섯 달을 적었습니다. 관계 단계가 입력되면 행동 칸이 단계에 맞춰 다시 쓰입니다.

달	주제	추천 대화	함께 해볼 행동	조율할 것
1개월째	리듬 정하기	'매일 몇 시에 연락할까'	연락 시간 하나 정하기	빈도가 아니라 리듬
2개월째	서로 이해	'내가 조용할 때 뭐라고 느껴?'	침묵의 뜻 설명하기	침묵 ≠ 거리
3개월째	표현 배우기	'고맙다는 말 들으니 어때?'	하루 한 번 짧은 말	통로 하나씩
4개월째	돈 이야기	'각자 자유롭게 쓸 액수는?'	세 칸으로 나누기	묻지 않는 액수
5개월째	가족과 거리	'너희 집은 명절 어때?'	경계선 두 사람이 정하기	선은 우리가
6개월째	중간 점검	'지난 반년에 뭐가 바뀌었어?'	합의표 다시 보기	안 지킨 것 하나만

같은 마음도 다르게 전하는 대화법

같은 마음도 다르게 전하는 법 — 서운할 때, 연락이 뜸할 때, 미래를 묻고 싶을 때.

이 해석의 근거

일간 갑

이 지면이 답하는 질문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전하는가'입니다. 근거는 두 사람의 통로입니다. 홍길동님은 결론 중심, 상대는 감정 중심입니다. 왼쪽은 부담을 주는 표현, 오른쪽은 같은 뜻을 더 잘 전하는 표현입니다. 홍길동님이 쓸 것과 상대가 쓸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예시는 세 상황입니다. 서운할 때는 사실 하나에 마음 하나를 붙입니다. 연락이 뜸할 때는 비난 대신 리듬을 묻습니다. 미래를 묻고 싶을 때는 통보 대신 질문으로 엮니다.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상황	부담을 주는 표현	의도를 더 잘 전달하는 표현	누가
서운할 때	'넌 원래 그래'	'어제 그 말이 나는 좀 아팠어'	둘 다
서운할 때	(말없이 조용해지기)	'지금 서운한데, 저녁에 이야기할게'	홍길동님
연락이 뜸할 때	'왜 연락 안 해?'	'요즘 리듬이 어긋난 것 같아, 시간 정할까?'	상대
연락이 뜸할 때	'바빠서 그래'	'이번 주는 바빠서 저녁 9시에만 연락할게'	홍길동님
미래를 묻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건데?'	'너는 2년 뒤 우리를 어떻게 그려?'	상대
미래를 묻고 싶을 때	(답을 미루기)	'2주 뒤 이 날에 내 생각을 말할게'	홍길동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핵심 답변, 관계의 강점, 풀어야 할 과제, 지금 할 행동을 한 장으로.

사용한 역법	절기(節氣) 기준 만세력
시각 기준	대한민국 표준시 (동경 135도)
자시 기준	야자시 (일주 유지)
산출한 기둥	세 기둥 (여섯 글자) · 시주 제외
발행 번호	20260101-0003

- 출생 시각을 몰라 시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행 분포는 아는 6글자 기준입니다.
- 표준시(동경 135도) 시계 시각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국내 대중 만세력과 같은 기준입니다. 진태양시 보정을 적용하면 절입·자시 경계 출생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두 배우자궁이 같은 방향(정식의 틀)을 보고, 일간이 서로를 살리는 상생이며, 지지에 연결점(사유축 삼합)이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면 되는 인연입니다. 조건은 대등함과 표현의 시점입니다. 사주는 성사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조건이 채워지는지가 답입니다.

관계의 강점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진 조합이라는 점, 과제는 축미충이 걸리는 표현의 시점입니다. 지금 할 행동은 45쪽의 첫 번째 — '나중에'에 시점을 붙이는 것 — 하나입니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이 책은 2026년 발행 시점의 계산 기준으로 썼습니다. 홍길동님의 출생 시각이 없어 시주를 세우지 않았고, 관계 단계가 입력되지 않아 단계별로 나눠 적었습니다. 두 정보가 더해지면 해당 지면이 좁혀서 다시 쓰입니다. 상대의 실제 속마음은 사주가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이 알려 줍니다.